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 70 (서교동)

70, Jandari-ro, Mapo-gu, Seoul, Republic of Korea 04030

www.a-bunker.com a-bunker@naver.com 010.8782.0122

# 양 민 희 Yang Minhee

국립제주대학교예술디자인대학 미술학부 서양화 전공 졸업 및 동대학원 졸업

**개인전**

2022 제4회 개인전 ‘홍연(紅聯)’ (프린트베이커리 센텀시티, 부산)

2022 제3회 개인전 ‘홍연(紅聯)’ (문예회관 제2전시실 / 델문도 뮤지엄, 제주)

2020 제2회 개인전 ‘달의 기억’ (예술공간 파도, 제주)

2019 제1회 개인전 ‘연월(戀月)’ (문예회관 제3전시실 / 델문도 뮤지엄, 제주)

**단체전**

2022 The Beginning (프린트베이커리 더현대서울, 서울)

2021 시간과 공간의 기억 (갤러리 레미콘, 제주)

2021 시대의 자화상 (델문도 뮤지엄, 제주)

2021 아트페스타 In 제주 ‘산지열전’ (산지천갤러리, 제주)

2021 제주, 창원 청년작가 교류전 ‘Over Come’ (창원대학교 박물관 조현욱 아트홀, 창원)

2021 샛보롬 미술시장 (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제주도립미술관 시민갤러리, 제주)

2021 MZ Art, New open (갤러리 ED, 제주)

2020 나를 찾아줘 -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세탕라움, 제주 / 델문도 뮤지엄, 제주) 외 다수

**아트페어**

2022 아트광주

2021 아트제주 (메종글래드 제주호텔, 제주)

2021 국제호텔아트페어 (인터불고호텔, 대구)

2020 아시아프(ASYAF)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서울)

2019 아트제주 (메종글래드호텔, 제주)

**작품소장**

제주드림타워, ㈜아트제주, 델문도 뮤지엄, 텔레스코프 제주, 한국화랑(한국갤러리)

외 개인소장

달, 지구 가까이에서 밤 하늘에 은은히 빛나는 별이다. 달은 전통사회에서 생활력의 원점이자 기준을 이루었다. 농경사회에서의 달은 24절기와 더불어 농업, 어업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었다.
특히 어둠을 밝히는 달은 각종 종교적, 예술적 상상력을 자극시키는 소재가 되어왔다. 해가 양(陽)의 기운으로서 남성성과 강인함 등 작열하는 볕을 의미한다면 달은 음(陰)의 기운으로서 여성성과 부드러움 등 차가운 시각적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포근함과 은은한 빛을 의미한다.
햇빛과 달리 달빛은 어둠과 함께 하며 사물을 개별화 시키거나 구분하기 보다는 서로 어우러지게 만들고 융합되게 한다. 어둠과 빛의 공존인 것이다. 달빛이 신비주의적인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지친 삶을 살아가다 잠시 여유를 갖게 돼 올려다 본 하늘에 그리운 이를 떠올리게 하는 달이 떠 있었다. 달의 둥근 외형은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게 했고 은은한 달빛은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추억을 떠올리게 했으며 나와 내가 속한 세상에 아직 그 사람의 흔적 또한 남아있음을 느끼게 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아가야하겠지만 어느 날엔가 다시 올려다 본 밤하늘에서 그리운 이를 떠올리게 하는 달을 마주하게 된다.
우리에게는 그리운 사람들이 있다. 보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만나고 싶어도 오지 않는, 그래서 같은 공간에 존재 했었지만 그리움으로만 다가서야하는 가슴에 뜬 달과 같은 사람 말이다. 바로 하늘의 저 달처럼 연인으로서의 달은 내 마음을 비추고 어루만지는 마음의 형상이었던 것, 즉 타자이면서 자아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리움은 나에게서 일어나는 타자에 대한 연민이다. 달은 내 마음에 투사(投射)된 실재이자 환영이다
작품에 등장하는 섬은 풍화와 침식에 의해 깎여 오랜 시간 바다에 떠 있는 외로운 존재로써 나 자신의 심정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소재로 표현하였다. 섬의 마띠에르(matière)는 모델링 페이스트(modeling paste)라는 재료를 통해 쌓아 올리고, 때로는 긁어내고 깎는 표현방식으로써 상처받은 나 자신의 마음이었고 이러한 행위는 내 치유의 표현이 되었다.
작품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바다는 내가 속해있는 사회를 의미한다.
그리움의 대상인 달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잔잔한 바다를 주로 작업을 하지만, 때로는 거친 파도를 표현함으로써 내가 속한 세상이 언제나 평온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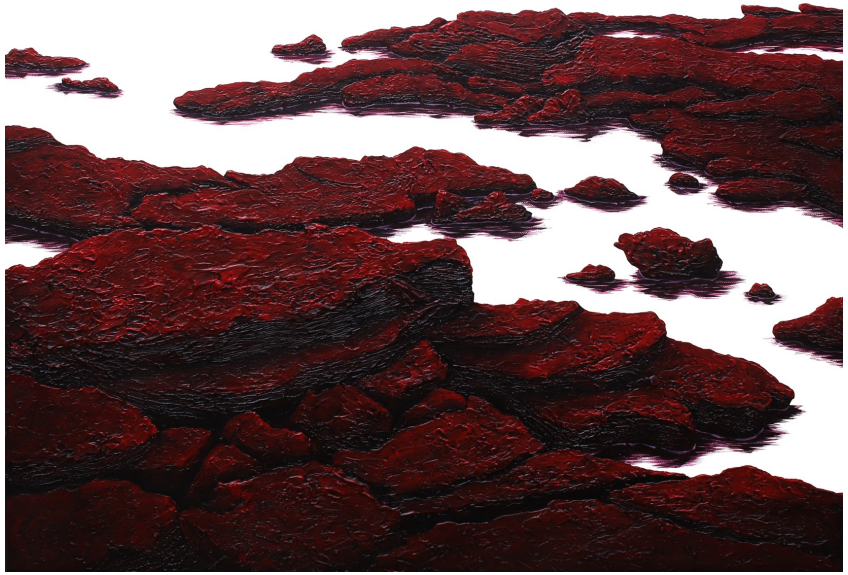
홍월(紅月)
modelingpaste,
acrylic on canvas
31.8 x 31.8 cm
2022
54만원

홍월(紅月)
modelingpaste,
acrylic on canvas
31.8 x 31.8 cm
2022
54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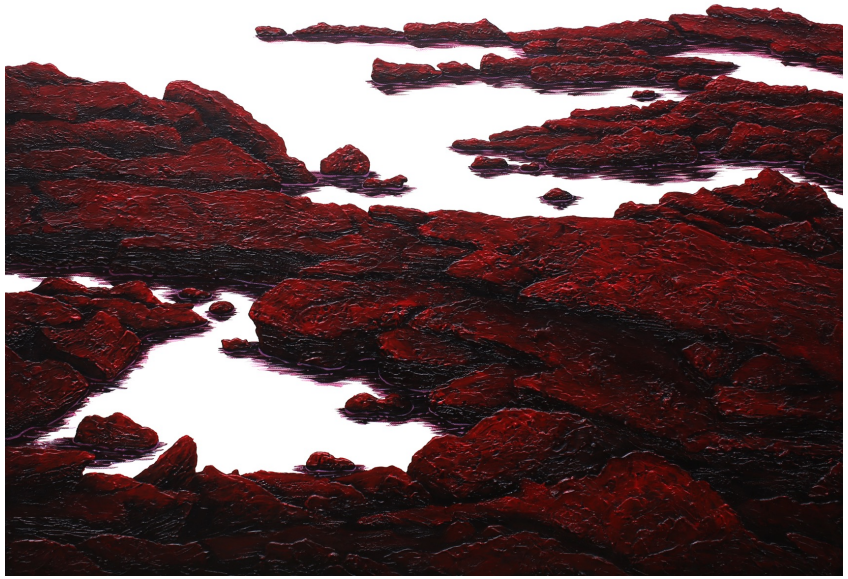
홍월(紅月)
modelingpaste,
acrylic on canvas
53.0 x 40.9 cm
2022
90만원

홍월(紅月)
modelingpaste,
acrylic on canvas
53.0 x 40.9 cm
2022
90만원

홍월(紅月)
modelingpaste,
acrylic on canvas
72.7 x 53.0 cm
2022
180만원



홍월(紅月)
modelingpaste,
acrylic on canvas
72.7 x 72.7 cm
2022
27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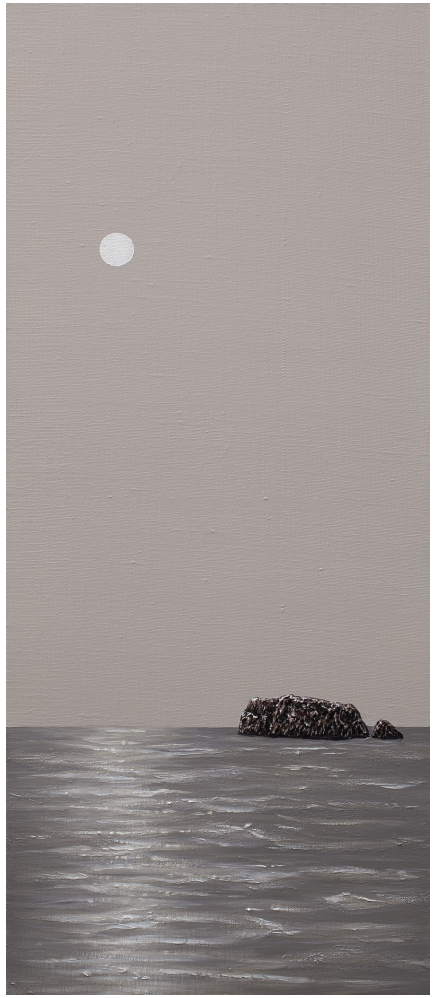


홍월(紅月)
modelingpaste,
acrylic on canvas
72.7 x 72.7 cm
2022
270만원

홍월(紅月)
modelingpaste,
acrylic on canvas
100.0 x 50.0 cm
2022
320만원

독백 (獨白)

modelingpaste,
acrylic on canvas
65.1 x 30.0 cm
2022
120만원



연월(戀月)

modelingpaste,
acrylic on canvas
72.7 x 30.0 cm
2022
160만원